

주부들의 편의성을 배려한 GS자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위한 세심한 테크놀로지 돋보여

충무로와 광장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GS자이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비롯해,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 시스템 등을 갖췄다. 최첨단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GS자이의 진면목을 살펴보자. 에디터 이은숙 자료 제공 GS건설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 '인기'

도심 내 주상복합 아파트로 관심을 끌고 있는 GS건설의 '충무로 자이'에는 주부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판교신도시 및 강북 뉴타운 지역에 설치됐던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은 GS건설이 지난해 분양한 여의도 자이와 부띠끄 모나코 등 최고급 단지에 적용돼 계약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주상복합 건물의 초고층화, 초고급화, 최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우선시되고 있다.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은 입주민이 직접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1층의 쓰레기 수집 공간에 모아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탈피한 것으로, 충별로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특성상, 입주민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쾌적한 환경을 실현해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충무로 자이는 전 세대 모든 방의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기존 주상복합 건물의 단점인 냉방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기존 주상복합 아파트의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만 설치돼 전 주거 공간에서 냉방 효과를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 또한 '충무로 자이' 만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줌으로써 쾌적한 실내가 유지되고, 냉난방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설계됐다.

중앙집진식 진공청소 시스템은 방과 거실에 설치된 배관 흡입구에 청소기 호스만 연결하면 간단하게

- 【홈네트워크】 집안의 가스밸브, 실별난방, 가실등(1회로)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
-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고급스런 실내분위기를 연출했다. (가실 및 전 침실)
- 【우물천장】 막스러운 우물천장으로 천장은 높아지며 거실은 더욱 넓어 보인다.
- 【디지털 도어록】 열쇠가 필요없는 디지털 도어록이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준다.
- 【침실 방화문】 자녀방 1곳을 고급 방화문으로 설치하여 화재시에도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할 수 있다. 기존에 소음이 심한 이동형 진공청소기를 대체해 새로운 청소 시스템으로 각광받을 만하다. 먼지와 쓰레기가 따로 집진기에 모이면 1년에 한두 차례만 필터를 갈아주면 돼 주부들의 일손을 크게 덜어준다. 일반적인 안방의 불박이장 깊이를 70cm(기존 60cm)로 해, 이불수납을 최대한 편리하게 한 점도 주부들에게 인기를 끌 만하다.

'충무로 사이'는 세운상가 구역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심 속 고층 주거시설로, 1577평 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2개 동 규모로 총 273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게 될 평형별 세대 수는 각각 31평형 60세대, 34평형 27세대, 44평형 54세대, 49평형 30세대, 52평형 54세대, 53평형 12세대, 54평형 12세대, 62평형 24세대다. 견본주택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5-9번지(갑을빌딩 옆, 구 목영자산부인과 위치)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09년 10월 예정이다.

로하스와 웰스(Well-being+Health) 선보이는 광장 사이

광장 사이는 47·60·92평형의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인 만큼 높은 품격을 추구한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1층 세대를 없애고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필로티로 설계됐다. 아파트 저층을 화강석 벽체로 시공해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옥상에는 특화된 설계로 품격을 더했다. 또한 옥상에는 정원이 조성되고, 전망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도 자랑거리다. 세대와 지하주차장을 바로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로 주차가 편리하고, 지상에 차가 없어 안전하다. 단지 내에는 웰빙을 뛰어넘어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주거문화인 로하스를 선보인 점도 눈에 띈다. 생태연못을 비롯해 GS건설 사이만의 웰스 시스템(웰빙과 헬스의 합성어)으로 입주민의 건강과 정신적 만족을 함께 고려했다.

광장 사이에는 입주민을 위한 전용 시설인 사이안 센터도 들어선다. 사이안 센터에는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실내 골프연습장, 체력 측정실, 아의 족욕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태양열 족욕장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세대 내에는 충무로 사이와 마찬가지로 열 교환 방식의 환기시스템과 중앙 진공청소기가 도입된다. 바닥에는 온도를 균등하게 전달하는 알루미늄 방열판이 사용된다. 주방에는 벌트인 가전제품을 비롯해 식료품 창고가 설치돼 주부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이탈리아 수입 주방가구 및 천연석 주방 상판으로 위생과 품격을 고려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한다.

광장 사이는 47평형 41세대, 60평형 79세대, 92평형 2세대로 총 122세대이며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2개 동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견본주택은 대치동에 위치한 GS건설 주택 문화관에 있으며 입주는 2008년 12월 예정이다. ☺



충무로 GS사이 모델하우스 거실, 주방 전경.